

ChungNam Report+



충청남도 로컬창조활동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

전지훈

충남연구원 충남RISE센터 초빙책임연구원
basillica@cni.re.kr

주요내용

로컬창조활동의 정책동향

-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월 지방시대의 국정비전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로컬의 창조역량강화를 강조하였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중임

로컬창조활동 특성과 생태계 접근

- 물질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개인중심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며 다양한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지역 특성의 경험과 자산의 욕구가 확산
- 로컬창조활동은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상공 산업이 융합협력하는 특성이 있으며 지역과 공생하는 경제생태계를 통해 비즈니스를 구현
- 로컬활동은 행정스케일보다 작은 골목과 마을단위 생활권의 공간적 관점이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창의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특징

국내사례 종합

- 국내도 로컬활동 선도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로컬활동으로 지역 생활권 자체를 창의적 공간으로 변모시켜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는 공통점
- 쇠퇴한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으로 창의적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비즈니스이며 관련된 다기능 업종의 집적화를 추구
- 지역마다 로컬앵커기업의 활동으로 로컬브랜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공동체와 협력적 활동이 형성, 확산되는 형태임을 시사

정책제언

- 최근 정부정책 관심 확대에 따라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
- 로컬창조활동의 지원정책은 생활권 단위 골목상권 차원에서 로컬 생태계형성을 통한 지역관리 비즈니스 방식의 범위적 접근이 필요함
- 구체적으로 유휴공간의 민간차원 창조적 공간구축·활용, 인재육성과 로컬앵커 기업 지원, 상호네트워크 활동 마련, 공공과 민간투자 기반마련 방안이 필요

로컬창조활동 정책동향 검토

- 2022년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(4.27)와 120대 국정과제 발표(7.26)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발표하였고 지방시대 중심의 자생적 발전을 강조함
- 구체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양성 및 로컬 브랜딩의 산업화 및 인프라 구축,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,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등의 다부처 연계 사업들이 다수 포함

〈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내용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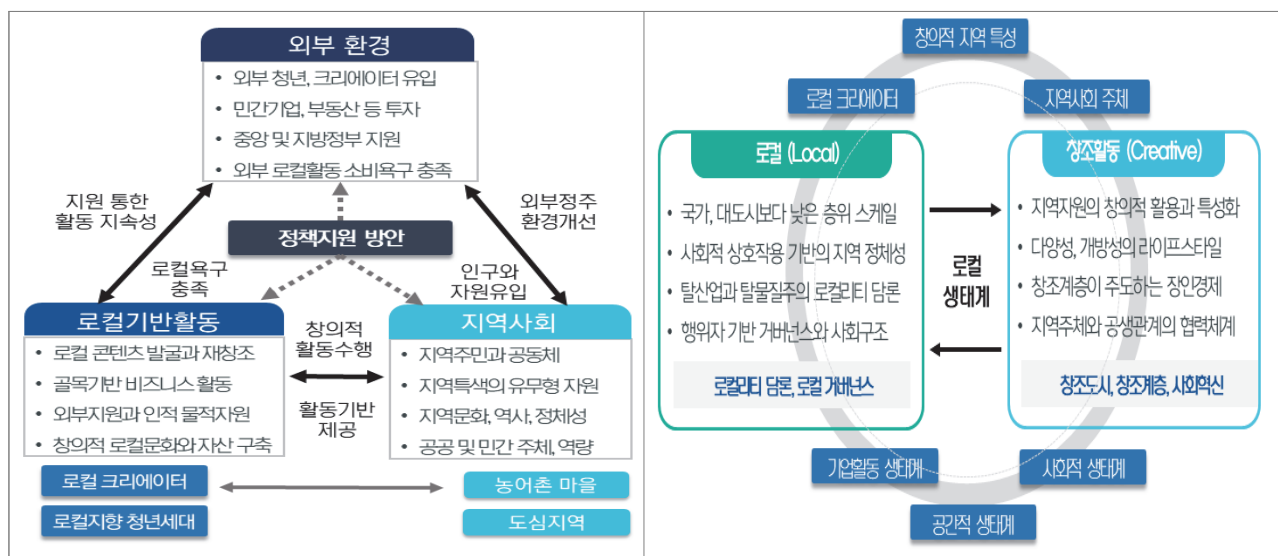
국정과제	주요 내용
국정목표 VI	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축
국민약속 23	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국정과제 119	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
	1)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양성
	2) 로컬브랜딩,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
	3)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
	4) 참여, 협력,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
	5) 지역 주도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투자협약 활성화
	6)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

-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「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」을 발표하여 ‘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’을 포함한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
- 지역 자원문화특성 기반의 로컬콘텐츠 발굴육성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‘25년부터 개소당 200억 지원 예정
- 지역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 접목한 로컬창업지원과 함께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 협력으로 자생적 골목상권 형성하고 지역산업 도약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
- (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) 대표적인 로컬창조활동의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7개 유형화를 통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
 - * 7개 유형: 지역가치, 로컬푸드, 지역기반제조, 지역특화관광, 거점브랜드, 디지털문화체험, 자연친화활동
- (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사업) 지역사회 지원정책과 밀접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로,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하고 생활양식(Lifestyle)에 기반하여 ‘살만하고 올만하게’ 지역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략 제시
 - 주민참여 로컬브랜딩은 로컬적 특징을 활용하며 주민 등 지역주체와 연계를 강조한 창의적인 활동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로컬창조커뮤니티 활동을 지원
- (청년마을만들기 정책사업)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
 - 본 사업은 정책대상과 활동이 청년들에 포커싱되어 있지만 활동 내용은 지역사회 및 주민의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활력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로컬창조활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유사
 - 본 사업은 참여 자격이 청년들로 구성된 인원과 조직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청년들의 창의적 활동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확산에 맞추어져 있는 특성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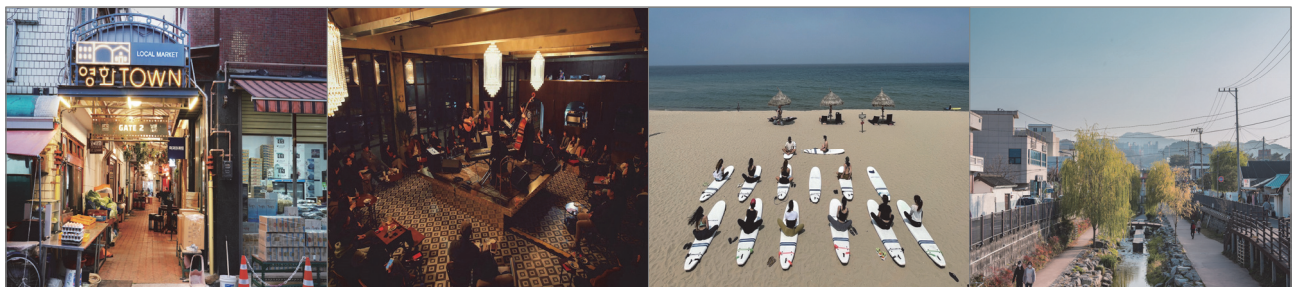
로컬창조활동의 특성과 생태계 접근

- 로컬창조활동 등장배경은 최근 탈물질주의 사고의 확산과 다른 지역에서 복제하기 힘든 경험과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며, 개인적 취향을 강조하고 공감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
 - 팬데믹의 확산은 글로벌과 대도시 집종의 현상에서 상생의 공간으로 지역(Local)과 중소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 한달살기 및 귀농귀촌처럼 지역사회 정착이 전국적으로 확대
 - 탈물질주의 사고관의 청년세대 관점은 기존 산업사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개인의 다양성, 개성, 삶의 질, 개방성 등 사고가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(모종린, 2021)
- 로컬창조활동의 특성은 지역성과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창의적 활동이며 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형태
 - 로컬창조활동은 지역사회 특성과 자원기반의 창의적 전략과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개방성과 다양성 중심의 연대를 통한 공동체 형태와 사회적 삶에 주목함. 이를 통해 중앙집중화 체제에서 지방분권의 논의와 연계됨
 - 로컬창조활동의 경쟁력은 지역성과 지역다움을 토대로 지역특성의 자산과 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욕구충족이 핵심
 -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융합하고 협력하는 산업을 추구하며 지역과 공생하는 창업생태계로 새로운 기회의 공간에서, 청년이라는 새로운 주체가, 이익추구와 사회적 가치구현을 함께 도모
- 로컬창조활동의 용어는 로컬리티의 지역주의 담론과 창조도시의 지역사회 창의적 활동 이론을 통해 형성된 개념적 접근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의 주목, 뉴노멀리즘 경향 및 내생적 발전전략 경향을 종합함
 - * 지역을 피난처로 보는 낭만주의, 서울과 수도권에 대비되는 시골, 지방이라는 편향론,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대상의 시혜론 등 편견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로컬이라는 용어가 확산(류석진 외, 2020)
 - 로컬은 행정적 위계의 지방정부가 아니라 스케일이 국가보다 작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공간적 관점이며 주체간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과정의 교차와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물
- 로컬창조활동은 생활권이라는 일정 지역 내 다양한 주체(기업, 지역주체, 행정) 특성과 공간적 환경, 사회적 관계, 정책요인 등 복합적 관계와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



국내사례 종합

- 국내에서도 로컬기반의 청년활동이 지속되면서 선도지역의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
 - 로컬 창조활동은 지역 정체성의 이해 및 사회적 관계형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동을 볼 수 있으며 지방소멸 극복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과 연계되어 있음
 -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로컬의 창의적 활동은 일부 업종과 콘텐츠 운영이 아니라 지역 생활권 자체를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모시켜 로컬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공통적 지향점이 있음
- 외적 형태는 소상공인 비즈니스이지만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로컬브랜드 테마파크 구축의 지역생활권 변화가 핵심
 - 쇠퇴한 지역의 저렴한 가격의 유희공간을 활용해 지역성을 지닌 창의적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골목 생태계 구축·확산을 위한 다기능 업종의 집적화를 도모
 - 군산시 영화동의 경우 민관협력조직 (주)지방을 통해 공간만들기, 동네 연결하기, 동네 경영하기의 종합적 Area Management를 추구하며 근방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한 이국적 로컬 브랜딩 확산
 - 공주시 제민천 주변 경우 제민천 정비 및 도시재생, 골목문화재생 사업과 함께 예술가 등 창의적 인재 유입으로 반경 3km내 게스트하우스, 카페, 미술관, 식문화로컬기업, 독립서점 등 로컬업종이 집적되며 마을변화 주도
 - 특히 충남 공주시 (주)퍼즐랩은 로컬변화를 주도하며 청년 마을살이를 통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충족과 확산 위한 공간디자인 및 커뮤니티 디자인, 브랜드 디자인으로 로컬생태계를 확산
- 외부 청년 및 창의적 인재들의 지역정체성 추구의 활동과 지역사회 공동체 및 활동주체의 협력·연대 활동이 특징
 - 서울 연남동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인이 주민,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숨은연남찾기, 연희걷다, 연남워크 등 프로그램 운영하며 (주)퍼즐랩도 공주시에서 외지청년들이 주민이 참여하여 프로그램과 사업을 함께 추진함
 - 충주시 관아길의 로컬운영플랫폼 보탬플러스협동조합은 로컬기업인과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들이 함께하는 ‘담장마켓’, ‘로컬맥주 쿨’ 등 이벤트를 통해 로컬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활동을 추구
- 국내 주요사례는 주도적 로컬앵커기업의 활동이 존재하며 활동을 위한 유희공간 등 활용 위한 자원마련이 중요
 - 충청남도 공주시의 (주)퍼즐랩이 제민천변 구도심을 중심으로 로컬의 창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로컬앵커기업으로 활동하며 청년마을지원사업, 지역재도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의 주요한 사례지역으로 도약
 - 이외에도 서울 연남동의 ‘어반플레이’, 군산시 영화동 ‘(주)지방’, 양양군의 ‘서피비치’ 등 국내 로컬활동의 확산 사례는 사업을 추진하고 로컬브랜드를 형성하며 새로운 인재를 정착·육성하는 로컬앵커기업 활동이 존재함
 - 로컬활동 확산 위해 골목의 유희공간들을 새로운 감성과 라이프스타일로 변모한 창의적 공간구축 및 집적화와 연관 업종의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공공보다 기업체휴, 펀딩플랫폼 등 민간차원 투자재원 유입이 공통적



04

정책 제언

- 로컬창조활동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은 최근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지속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법·제도적 기반구축과 행재정지원의 조직체계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함
- 정책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로컬창조활동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제안할 수 있음

〈충남 로컬창조활동 생태계 형성의 정책추진과제〉



- 로컬의 창의적 활동 위한 유희공간 재활용과 운영체계 구축 분야에서 정책지원 필요
 - 유희공간 재활용 위해 공공역할보다 민간 로컬주체의 적극 참여를 중심으로 로컬의 창의적 공간 조성·운영이 필요하며 로컬의 다주체간 협력 통한 공간운영 위해 '로컬리노베이션 스쿨'의 충남 적극 모색이 필수적
- 지역사회의 로컬생태계 형성 위한 로컬앵커기업 육성과 관련 업종간 집적화에 대한 모색
 - 지역내 다양한 업종을 연계, 확산하는 로컬앵커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 외부 인재 유입전략, 안내소, 컨설팅 등 지원센터 역할을 통해 생태계의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지원
- 생활권 기반 로컬활동의 협력체계 구축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지원이 필요
 - 충남 내 민간기업, 로컬활동 상호교류와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충남로컬서밋 등 민간중심의 개최지원과 함께 지역차원에서 소상공인, 유관기관, 주민공동체, 대학 등 다주체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지원
-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한 청년기반 로컬인재발굴양성의 정책연계 고려
 - 로컬 생태계의 핵심자원은 사람이며 청년핵심인재 유치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가 필요함. 특히 대학과 지역혁신도모하는 RISE체계에서 로컬인재육성이 도입되어야 하며 충남학 등 지역학 교육도 필요
- 로컬활동 지속성을 위한 공공재원 마련 및 민간투자 유인의 정책 방안
 - 직접적인 공적지원보다 지방정부 보증 및 융자지원사업 수요의 충족이 필요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이 필요하며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로컬투자플랫폼 운영지원, 사회성과보상사업(SIB) 로컬분야 추진 등 방향이 요구

참고문헌

전지훈 외, 2023, 지역사회와 연계한 로컬창조활동 지원의 정책방안 연구,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최종연심회 자료
 류석잔·조희장·김용복, 2020, 로컬의 진화, 스리체어스.
 모종린, 2021,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. 서울: 알기.